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운전 필수”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137만 여대로 인구 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가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과 보상 여부를 떠나 사망률이 높아지고 부상에서 회복해도 후유증이 남는 만큼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여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수가 차 안에 있던 사망자 수보다 많은 나라는 칠레, 일본, 한국 3개국 뿐이다.

OECD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1.1명, 우리나라는 2.2명으로 그 두 배이며 인구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2명의 3배인 3.9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군산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군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1790건 중 보행자 사고 373건 발생 21% 차지

교통시설 개선·안전 교육 홍보·보행자 보호 등 활동

미장초교 앞 도로 등 7개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1790건 중 보행자 사고가 373건 발생,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5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15명, 42.9%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은 발생 25건 당 1명으로 차량탑승 사고의 치사율인 발생 71건 당 1명보다 2.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으며 그 중 보행 사망자가 4명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로 지난 2월 27일에는 정차 중인 화물차 뒤에 앉아있던 A씨(5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운전자가 후진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

4월 21일에는 조촌동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씨(56세)를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앞서 4월 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고, 4월 14일에는 안개가 낀

새벽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했다.

▲ 군산 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총력 기울여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군산경찰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경찰은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 교육 홍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경찰활동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에 나섰다.

교통시설 개선으로는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보행자 사고 우려가 높은 미장초교 앞 도로 등 7개소에 지자체 등과 협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 운전자 스스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구역전사거리 주변 등 11개소에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간이중앙분리대 11개소와 횡단보도 60개소 등을 신설해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높였다.

교통안전 홍보는 군산경찰서 특수 시책으로 군산시민 1만 8천여 명에게 교통안전 경보 및 기후, 노면상태에 따른 교통 정보와 주의 사항을 문자와 SNS를 이용 수시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세아베스틸 등 공단 입주 업체와 시내버스 회사 등 운수업체, 어린이집, 학교, 노인회관 등을 지속 방문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경찰활동을 통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교차로 15개소를 선정, 캠퍼더와 무인단속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20개소를 선정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이 거점 및 예방순찰을 하여 보행자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운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전방과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운전자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 및 주의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를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IMSI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http://smhu.imsil.go.kr

정수산 자연휴양림
전화 : 063-642-9456~7
http://www.sunsusan.co.kr